

제주사람들의 文化的 正體感*

—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庾 喆 仁**

目 次

- | | |
|-------------------------------|------------------------------|
| I. 문제의 제기: 社會接合과 文化接變 | III. 육지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제주문화의 正體感 |
| II. 외부세계에 대한 양면성: 傳統과 文化的 正體感 | IV. 맺는말: 육지와와의 접촉과 濟州社會 |

I. 문제의 제기: 社會接合과 文化接變

제주도는 최근 10여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교육 및 대중매체의 보급에 따라

* 本 論文은 “濟州島와 陸地部간의 社會接合: 濟州社會構造와 文化的 正體性”이라는 제목으로 社團法人 世界平和教授協議會 濟州支會 第4回 학술세미나(1985년 4월 20일, 호텔제주로얄)에서 발표되었고, 第17回 韓國文化人類學 全國大會(1985년 10월 18일-19일, 한양대학교 반월캠퍼스)에서 “濟州島와 陸地間의 社會接合과 文化的 正體感”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을 수정·확대한 것이다. 이 두 모임에서 論評과 질문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1984년도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공동연구 지원과제인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도서와 육지간의 접합에 관한 연구: 제주도의 경우’라는 제목의 연구(연구책임자: 高南旭, 공동연구원: 고창훈, 庾喆仁)를 筆者가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本 論文의 주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資料의 일부는 정경옥양(당시 社會教育科 3학년)이 1984학년도 2학기 필자의 「社會文化人類學」 강좌의 한 부분으로 실시했던 調査資料임을 밝혀 둔다.

** 社會科學大學 社會學科 專任講師(人類學 專攻)

빠르게 육지문화에 편입, 동화되어 가고 있다. 감귤이라는 현금작물의 소개로 수입은 증가되었지만 외부시장 의존도의 심화와 외부자본의 침입으로 제주경제는 전체 국가경제에 종속되고(金俊希 1984, 趙惠貞 1985), 대규모의 관광은 관광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Smith 1977:5), 국가개발정책에 따른 제주도의 관광지역화는 중앙에의 의존도를 더욱 높혀주고 있다. 또한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제주사회내의 취업난과 교통의 편리는 제주사람들의 교육·직업상의 영구적 육지로의 이동과 잦은 육지왕래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제주사회의 문화주제(Opler 1945)를 도시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육지문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최근 일련의 제주문화에 관한 논의들(고창훈 1984, 全京秀 1985, 趙惠貞 1985, 玄吉彦 1985)은 제3세계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내부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¹⁾나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문화의 '탈식민지화' 내지 '재활력화'라는 과제를 다루면서 제주문화의 뿌리라 말하는 공동체의식을 살려야 한다든지(고창훈 1984), 과거 제주도의 자치성의 근본적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든지(趙惠貞 1985), 또는 이미 제주사람들은 외부의 압제적 힘에 대응하는 내면적인 독자적 삶의 양식을 전설로 형상화시켰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玄吉彦 1985). 이러한 논의들은 최근의 제주사회가 육지와외의 교류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앞서 말한 여러 분야에서 "발농사적인 체제에서 바로 산업화 체제로 건너뛰는(趙惠貞 1985)" 변환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들인 것이다. 즉 외부세계와의 文化接變(acculturation)의 상황 속에서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은 제주도과 같은 소위 '주변(periphery)'으로 하여금 외부에 의한 착취의 정도를 의식하게 하고, 주변사회의 전통적인 正體感(identity)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역사적 변환의 과정에 대한 반응으로 주변사회는 그들의 문화적 자주성만을 한정해서 강조하는 것이다(Bianco 1980:153).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가 보다 큰 사회인 육지와 교류하는 과정을 社會接合(social articulation)과 文化接變이라는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에서

1) 内部 植民主義란 한 국가의 소수민족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지배 및 경제적 착취를 의미한다(Keesing 1985:559).

접합이란 말은 사회체계의 부분들간의 결합, 즉 서로 다른 '층위들' 또는 수준들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다(Foster-Carter 1984:258). 예를 들어 농촌사회와 보다 더 큰 국가사회간의 접합은 농촌사회가 그 正體感을 유지하면서 보다 더 큰 사회 속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assimilation)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재하는 사회단위와 연결되고 관계지워지는 것을 말한다(Sanders 1977:6). 육지와 제주도의 관계를 사회접합이라는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사회를 고립된 폐쇄사회로 보는 종래의 시각보다 전체 국가사회와의 연결관계에 초점을 두는 도시와 농촌간의 共生的 접근(Sanders 1977:147-152)이 현대산업사회에 더 적합한 것과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다.

문화접변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인 접촉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Redfield et al. 1936:149). Beals(1951)는 미국내 이민집단들의 적응과정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에 대한 도시의 영향이라는 도시화 과정을 이러한 문화접변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육지의 광범위한 영향을 문화접변의 현상으로 파악하면, 앞서 말한 제주문화의 재활력화나 뒤에서 살펴볼 몇몇 제주사람들의 이야기는 문화접변으로 주어진 혹은 가정된 열등감을 회복하려는 문화접변의 결과중의 하나인 반동현상(Redfield et al. 1936:152)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문화접변의 상황 속에서 지방엘리트나 배운 사람들의 움직임으로²⁾ 설명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와 육지간의 사회접합 속에서 제주사람들의 文化的 正體感(cultural identity)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육지와 육지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논문에서 파악하려는 기본적인 제주문화의 주제나 제시된 제주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방엘리트나 배운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金錫俊, 趙惠貞 두 교수의 논문에 힘입은 바 크다.

Ⅱ. 외부세계에 대한 양면성 : 傳統과 文化的 正體感

일상생활의 실체는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전형적인 틀(typificatory schemes)을 가지고 있다(Berger & Luckmann 1966).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 이러한 전형화의 하나는 이주자라는 필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향토 문화 혹은 민속문화(folk culture)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외부인과 원주민의 구분이라 하겠다(曠喆仁 1984). 고향에 기초한 이러한 親疎區分意識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崔在錫 1976)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통속적인 용어(folk term)가 갖는 의미는 제주도 사람들의 正體感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와이 원주민에 대한 연구(Linnekim 1983)를 예로 들어 內外集團의 구별에 대한 통속적인 용어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사회에 사는 원주민들은 농촌의 생활과 도시세계를 '內部(inside)'와 '外部(outside)'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대조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은유(metaphor)인데, 외부는 백인과 동양인이 주도하는 세계이며 내부는 하와이 원주민이 아직도 지배적인 친구와 가족이 사는 영역인 것이다.

제주사회에서 중요한 외부세계는 바로 '육지부'로 표현되는 데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사회를 가리킨다.³⁾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적절한 일상용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카테고리가 매우 중요한 의식적인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陸地'라는 말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통속적인 개념을 보면, '학교에서는 바다의 반대 개념, 집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으로 사용하여 '문명지' '제주도에서 먼 거리' '보다 더 넓은 세계'로 인식되면서 '배타적인 태도'로 말하는 뜻이 숨어 있다. 따라서 외부세계인 육지에 대해서 선망을 하면서도 內集團 意識을 바탕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로 여겨지는 集團爲主主義는 집단이 외부에의 명분을 뚜렷이 하며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전통을 이룩하여, 그 성원이 사회적인 개체에 집착하게 하는 基底를 이루며 따라서 자량이나

3) 濟州人은 半島를 陸地라 하고 半島人을 陸地人이라고 한다(石宙明 1968 : 120).

전통 또는 프라이드로부터의 이탈이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게 한다(張潤植 1982 : 135-136)는 점에서 제주사회를 집단위주주의의 한 단위인 집단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內外集團의 구별의식은 특정사회가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강화되어 고립된 周邊文化의 특이성으로 나타난다(朴在煥 1977 : 632)는 점이다. 즉 육지에 대한 배타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변사회에서 나타나는 자기 사회에 대한 正體感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육지로부터의 문화전파의 결과, 외부세계로 표현되는 육지 문화 혹은 유교문화에 대한 선망의식은 가족구조, 남녀관계, 민간신앙 등에도 나타나고 있어(玄容駿 1979, 趙惠貞 1982), 제주사람들의 육지에 대한 의식은 양면적이라 하겠다. 민속자료를 분석하여 제주도민의 사회의식을 살핀 한 연구에서는, “제주도 특유의 內集團 의식이 외지인 및 그 문물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으로 나타내면서도 외부에 대한 선망 역시 그에 못지않게 잠재되어 있다(朴在煥 1977 : 633)”고 그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에 대한 양면성은 접합되어 있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를 고립된 사회로 파악하여 제주사회에서의 正體感에 대한 강조를 설명하는 것보다 사회접합과 문화접변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재의 제주문화의 주제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된다 하겠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市와 주변사회(marginal society)라 할 수 있는 한 도서사회의 관계를 밝힌 연구(Walter & Hassan 1977)를 보면, 싱가포르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Pulau Sudong섬 사람들은 市와 격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市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전형적인 관계와 흡사한 것이다. 미국의 농촌 소읍에 대한 연구(Vidich & Bensman 1968)에서 보면, 농촌사회와 외부세계와의 연결은 정치적·경제적 정책이나 문화의 전파 등으로 인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외부의 영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데 외부세계에 대한 그들(농촌주민)의 태도는 양면성을 띠게 된다. 즉 외부세계로 대표되는 각종 세도가 농촌주민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고 외부세계의 규범이 전체 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망하고 존경하지마는 동시에 바로 이러한 극심한 의존으로 농촌생활이 낮게 평가된다는 것 때문에 반발하고, 도시와 농촌의 두 세계 속에서 그들의 농촌세계가 더 낫다고 믿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육지문화의 규범이 받아들여져 육지의 생활방식과 비슷해져 가

는 상황은 다음의 두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事例 1〉

육지머느리라고 해서 시집와서 구박도 많이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육지부에 있는 여자들은 제주도 여자보다 생활력이 약한데서 육지부 머느리는 꺼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지역적 차도 이제는 조금씩 좁혀져서 육지여성들이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다. 생활방식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독특한 지방색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事例 2〉

...그러나 점차 육지의 문화유입이 쉽게 들어오고 있고 또한 우리세대⁴⁾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육지와 제주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데에 대해서 제주사람들이 갖는 태도를 보면 제주사회에서 傳統을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대부분 제주문화의 특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耽羅精神’ ‘三無精神’ ‘조낭精神’ 등 전통에 대한 관심이 제주사회에서 매우 높다 하겠다. 전통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정신에 대한 강조는 도서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島嶼性에 대한 認知的 측면에서의 적응(曠喆仁 1984)인 동시에 문화접변의 결과로 나타나는 제주문화의 再生運動(revitalization movement, Wallace 1956)의 일종인 것이다. 전통은 正體感을 형성하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거의 생활양식에 대한 의식적인 모델로서(Linnekin 1983:241), 사람들은 전통을 해석하며 전통에다 역동적인 측면을 붙여넣는다는 점에서 전통은 창조(invention, Wagner 1981)되어진다. 또한 전통은 곧 ‘뿌리’라는 의식과 연관되고 뿌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正體感을 확립한다는 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 하겠다(Bianco 1980:155). 따라서 제주와 육지간의 사회접합의 정도가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제주사람들은 주변사회의 한 적응전략으로써 전통에 대한 강조를 통해 文化的 正體感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전통은 제주사회의 통합을 위한 상징으로서도 그 의미를 갖는다.

4) 이 글을 쓴 사람은 20代の 여자대학생이다. 따라서 젊은세대 혹은 배운 젊은 세대를 가리킨다.

社會的 正體感(social identity)이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과는 달리, 文化的 正體感(cultural identity)은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집단과 개인과의 일치를 가져오는 어느 정도 고정된 정체감이다(Fitzgerald 1974: 3). 양문화적(bicultural) 상황인 뉴질랜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적 정체감과 문화적 정체감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원주민인 Maori족은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체감이란 면에서 전체 국가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Maori족이라는 생각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감은 개인의 행위에 공유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다(Fitzgerald 1974: 3). 따라서 마오리족의 사회와 뉴질랜드라는 국가사회는 마오리족이 문화적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더 큰 사회와 연결됨으로 접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마오리족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회문화적 영역속에 참여하면서 청중(audience)에 따라 언어의 사용도 달라지는 등의 여러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제주도에서도 표준어와 방언을 상황에 따라 달리 쓰면서 필자가 있을 경우에 방언으로만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제주도 말로는... 인데'라는 단서를 자주 붙이고 있다. 언어와 문화적 정체감의 관계에 대해서 玄吉彦(1985)은 “제주의 독자적인 의식을 구축하고 어떤 문화에도 압제되지 않은 독자적인 문화를 보유하기 위해선 언어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접합의 상황에서 전통과 문화적 정체감의 관계는 미국에 살고 있는 포르투갈 이주민에 대한 연구(Smith 1974)에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내 포르투갈 이주민 사회를 보면 포르투갈 사람과 외부 사람들간에는 공간적·사회적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집단간의 접합이 이루어지는 거의 유일한 부분은 경제적인 관계망(network)이라 하겠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접합의 부족을 느끼며, 그 원인은 포르투갈 사람들의 전통주의(traditionalism) 때문이라고 두 집단 모두 생각하고 있다. 즉 이주민들이 미국식의 생활방식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주민 사회와 외부세계와의 관계가 부족한 이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Smith(1974: 83)의 조사자료에 나타난 포르투갈 사람들의 대화나 관찰된 실제의 행위를 보면, 포르투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정반대로 포르투갈 사람들도 다른 이주민 집단과 마찬가지로 미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게다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조소를 당하는 사

람을 가리켜 포르투갈 이주민 사회내에서 우둔한 ‘포르투갈놈’이라고 말하고 있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실제 행위와의 차이에 대해서 Smith(1974 : 89)는 “포르투갈 이주민 자신들도 그들의 정체감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전통주의는 실제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단지 포르투갈 사람을 나타내고 포르투갈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지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장치”라고 결론짓고 있다. 하와이 원주민들의 농촌에서의 전통에 대한 집착과 다민족사회(plural society)에 해당하는 도시에서의 하와이인들의 전통에의 복귀운동도 정체감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며, 이러한 정체감의 확립은 사회적인 범주(social category)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Linnekin 1983 : 250).

육지문화와 제주문화의 차이가 위에서 예를 든 민족문화간의 차이는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화가 환경적응의 메카니즘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문화를 한국문화 안에서의 도서문화라는 독특한 하위문화(subculture)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중앙체제에의 정치적 예속과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타율의 구조적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라는(고창훈 1984 : 36) 점에서 주변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문화적 자주성에 대한 노력이 제주문화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라 하겠다. 따라서 제주도 사람이라는 정체감의 확립은 육지/제주의 二分法的 카테고리 속에서 인지된 다름(perceived otherness)의 기초가 되는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즉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왜 제주사람임을 강조해야 되는가, 즉 왜 정체감을 중요시 하는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왜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의 경계가 지속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한 배경으로 육지와 제주가 접합되어 있어 광범위한 문화접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사람의 생활세계에서 육지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규정되는가와 관광으로 잠시 머물든지 제주도에 살고 있든지간에 육지사람들은 현재 제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Ⅲ. 육지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제주문화의 正體感

1. 제주사람의 생활세계에서의 육지사람의 의미

제주사람의 생활세계에서 중요한 他者이면서 항상 외부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육지사람’은 비록 고향에 기초한 구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게다가 제주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대면관계(face-to-face encounter)한 육지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나에 따라 추상화된 전형적인 육지사람의 이미지는 다르다. 따라서 육지사람에 대한 배타성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조시대에 유배온 선비들이 문화접변 과정에서 육지사회에서 차지한 위치로 말미암아 제주도에서 환영받고 이들의 영향이 매우 컸었다(양순필 1985)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 인용한, 이조말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을 다룬 玄基榮(1983)의 소설의 한 부분을 보면, 과거 제주사람들의 생각을 현재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면서도, 아울러 외부사람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태도는 어느정도 뿌리깊은 것임(Merrill 1980)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런디……장두 하르방이 육지사람이라, 정의골 백성들이 수이 모다들지 어 멀지 모를로고…”

“어따, 벨 걱정을 다 해엿고. 저 하르방들이 입도헌 지 닻해나 되었는데, 그 만허민 이 섬 백성 다 된거쥬. 여기 제신 동장 어른걸이 고·양·부 세 성씨 말고 이 섬 백성 종자가 따로 있는가? 이 섬에 살면 다 제주 백성이라. (下略)”
(p.69)

“저 화전것들, 노망한 육지 늙은이 한티 장두를 맡기더니 꼴 좋다! 육지놈을 믿느니, 썩은 도끼 자루를 믿쥬, 원.”(p.135)

“(上略) 어디서 뭇사 해먹다 들어온지 모르는 그 육지것한티 회장을 뺄것으니 …”(p.194)

결국 제주사람은 神話에서 규정한 사람들과 入島祖 몇代 후손들로 구성된 셈인데 육지사람이 어떻게 제주사람이 된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현재

로선 필자가 정확히 추론할 수는 없다.⁵⁾ 다만 정체감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제주사람들로부터 제주사람이라는 정체감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육지사람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상황에 따른 인식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육지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함축성은 제주문화의 정체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제주도내에서 잘못된 것은 보통 육지사람들의 행동으로 돌리는(廣岳仁 1984:130) 경향이 인용한 소설에도 나타나듯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경험에서 육지사람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더 강하게 부각된다. 더군다나 육지에 나가 있는 제주사람을 보고 '육지사람 다 되었구나'라고 말할 때의 감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치 미국사회에서 흑인이 백인의 흉내를 낼 때 흑인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것과 흡사하다. 사회에서의 잘못을 외부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對面關係의 사회 즉 '아름으로'일이 되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간의 관계를 더욱 원할하게 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는데,⁶⁾ 그러한 전략이나 다른 사회에 동화된 사람에 대한 태도는 제주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 正體感의 형성은 다른 사람 즉 외부사람이어야 하는 육지사람과의 경계를 지속화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준다.

2. 육지사람들이 제주사람에 대해 갖고 있다고 믿는 관점과 관광

제주사람들이 문화적 정체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지역 엘리트들이 민족주의자(nationalist)의 속성을 보이는 배경은 제주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있다. 나아가서 제주사회의 구조는 전체 국가사회 혹은 육지사회의 구조와 연결된 것이므

5) 일상생활에서 제주사람이 되었는지를 언어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제주도방언이 통용어가 되었는지가 하나의 지표인데 현재의 제주도는 도시화와 교육의 보급으로 표준어가 일상화된 사회영역이 많음으로 해서 언어사용에 의한 인정보다는 제주사회나 제주문화에 대한 시각 혹은 애정의 정도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6) 대면관계의 사회에서의 잘못이 어떻게 처리되며 그 처리되는 과정이 그 사회의 존속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가는 李文烈의 소설(1983)에 잘 그려져 있다.

로 두 사회간의 접합양상이 정체감의 형성배경이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의 의미와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육지사람들이 제주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관광과 이주민의 계층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고자 한다.

제주사람들이 과연 외부사람들에 대해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다음의 답변은 관광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事例 3〉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상당수의 인원이 육지부에서 이주해 와 살고 있는데, 이들의 배타적인 행동, 범죄의 격증 등으로 이고장 인심이 사나와지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의 무분별한 행동에 청소년의 풍기문란 등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일부 인사들이 지적 우월감을 내세울 때 배타적 감정이 살아난다(필자의 傍點 추가).

〈事例 4〉

배타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는 외부인의 제주도민에 대한 태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中略)… 과거에 육지부 사람들은 제주도민을 마치 미개인으로 생각하고 관광지의 부속물처럼 보아서 제주도민을 천시하고 신기한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외부인으로서의 관광객(Greenblat & Gagnon 1983)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대해서 MacCannell(1976: 5)은 “관광객과 사회과학자는 미개인, 가난한 사람들 또는 소수집단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관광객들은 관광지 주민을 깔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Dumont(1984: 140)은 차라리 반대의 시각 즉 관광지 주민이 관광객을 “우러러 본다”고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각은 원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반응⁷⁾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관광객과 지역주민

7) 원주민들이 관광객을 향하여 ‘엿먹어라’ 하는 식의 반응은 관광객이 깔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원주민들이 관광객을 보는 시각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全京秀교수의 논평에 힘입은 바 크다.

의 관계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관광은 관광객, 관광산업 종사자,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주로 육지사람과 제주사람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관광객과 주민의 관계는 서로의 행동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의 제주사람들이 가장 먼저 육지사람으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관광에 직접·간접으로 연관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관광에 대한 이와같은 반응은 육지사람이라는 말이 갖는 함축된 의미의 중요한 색깔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사람 자신들은 ‘창경원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도 드는 것이며 서로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육지사람에 대한 배타성이 육지사람들 먼저 문화간의 차이를 느끼고⁸⁾ 나아가서 육지의 생활방식의 우위를 강조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事例3)은 제주문화의 정체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즉 한 집단의 정체감은 다른 집단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 갖고 있다고 믿는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육지사람이 자기 자신들을 보는 관점이 주로 관광에서 비롯된다고 제주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를 아름다운 관광지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육지사람은 제주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廣喆仁 1984: 38)”라고 판단하며 ‘아직도 제주가 미개지역으로 알고 있는 육지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자와 관광객의 공통성을 입증하는 예로서는 필자가 학생으로부터 ‘연구만 하는 교수’라는 불만을 들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제주사람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육지사람이 와서 한다는 점이 관광객이 지역주민을 보는 관점과 같은 관점일 것이라고 느낀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학 현지조사에서 연구의 대상들이 조사자의 하위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정보제공자들이 조사자의 문화의 틀 속에서 해석하여 말한다는 사실(Spradley 1972, Wagner 1981)과 관련된다.

8) 三無의 良俗도 제주인이 스스로 자화자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외부인이 상호비교의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제주인의 생활양식과 제주문화의 특성을 집약시킨 표현이라 한다(玄容駿 1983). 육지사람들이 먼저 차이를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金錫俊 교수와의 대화에 힘입은 바 크다.

관광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묘한 데,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내적 갈등과 긴장을 수반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집단의 통합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Smith 1977: 6). 집단의 통합과 유지는 정체감의 확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몇몇 연구에서 관광이 지역주민의 정체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Linnekin(1983)의 하와이 원주민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관광객들의 유입은 민족주의와 더불어 하와이 원주민들이 전통의 창조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감에 대한 연구(Volkman 1984)를 보면, Toraja 주민들의 正體感의 변화와 正體感을 나타내 주는 상징의 의미 변화는 중요한 他者와의 만남과 Toraja 사람들간의 새로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移出(out-migration)과 잠시 머물다 가는 서구의 관광객들의 移入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관광에 국한시켜 그러한 영향을 살펴보면 경계를 짓기 위한 정체감의 의미보다는 정체감의 내용 즉 전통의 재발견 및 확대에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관계는 사회적 거리의 정도와 이웃이나 지역주민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典型化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Nuñez 1977: 212). 또한 관광의 성격이나 종류(Smith 1977: 2-3)에 따라 두 집단간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제주도 관광이 위에서 예를 든 지역과 같은 모습으로 정체감의 확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즉 제주도 관광은 서구인과 원주민의 관계가 주종이 아니며 문화를 상품화하는 정도가 적은 '보는 관광'으로, 한 국가사회 안에서의 육지사람과 제주사람의 만남이다. 따라서 관광객으로서의 육지사람이 제주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한 반응으로 정체감이 형성되고, 또한 관광이 주민과 별개의 현상으로 진행되어 간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관광은 경계를 짓기 위한 정체감에만 주로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이는 관광지역이 관광객의 욕구나 태도 및 가치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의 문화와 점점 비슷해져 가기 때문이다.⁹⁾ 물론 지역 엘리트들은 민족주의와 유사한 신념에서 전

9) 관광에 대한 대부분의 인류학적 연구가 취하고 있는 이론적 전망은 문화적 변형 현상으로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Nuñez 1977: 207). 따라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욕구나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실증적

통의 재발견 및 확대라는 전통의 창조 즉 제주문화의 창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체감의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관광을 보는 입장은 다양하므로 전통에 대한 관심을 관광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접변에 대한 반응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비대칭성¹⁰⁾(全京秀 1985)과 관광이 제주도를 나타내고, 익숙한 생활공간이 관광으로 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 등이 지역주민인 제주사람들의 정체감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3. 이주민에 대한 제주사람의 인식

섬에 살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이나 콤플렉스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육지인과의 빈번한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육지사람과의 접촉이 제주사람들의 생활세계가 육지사람들의 생활세계에 접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의 정체감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구별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육지사람에 대한 생각을 보면,

〈事例 5〉

본교가 육지부 행정직원들의 휴양지는 아닐텐데 요즘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듯 하오. 어떤 분은 본교 발전을 위해 행정 일선에서 열심히 뛰다가도 잠깐 잠깐 스쳐가는 육지부 행정직원의 인사내용만 들으면 김이 콧 새다고(濟大新報 1985年 3月 25日字).

제주도에 살고 있는 육지사람들은 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느냐 혹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제주도에서의 거주기간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육지와 사회의 관계망이 잘 연결된 기

연구는 변동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반응에 대한 연구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10) 관광객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은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관광객은 지역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고 지역주민은 관광객의 언어와 지역언어라는 두개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언어가 가장 표준어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에 근무함으로 인해 거주기간이 행상이나 노동에 의존하는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육지사람보다 짧으며 제주사회내에서 비교적 상층에 속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잦은 육지사람들의 공식부문에서의 이동은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잠시 머물다 가는 외부인으로서 육지사람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는 도시환경의 한계이면서 또한 한국사회가 서울 중심의 생활세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육지사람들은 제주도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제주사람과는 제주사회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것이다. 지금 “이 땅에 매여 사는 한 사람(고찬훈 1984 : 45)”으로서의 제주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육지사람의 잦은 이동이 더욱더 이 땅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육지사람과 접촉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제주도가 충분한 그리고 익숙한 생활공간인 것이며, 항상 접촉해야 하고 매번 다른 육지사람의 움직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제주사람이라는 정체감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제주도와 육지간의 사회접합의 정도가 점점 강해진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비공식 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현재에 와서는 그 수가 여전히 적다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 공식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여겨진다. ‘옛날에는 육지사람을 저 밑으로 봤다’는 이야기나 “과거로부터 육지인이라면 乞人쯤으로 생각하여 도대체 상대를 잘 하지 않았다. 盜賊도 自作自給되는 섬이니만큼 별로 없었고 약간이 있다면 보통 「육짓놈」이란 엇장수들의 작난이었다(石甬明 1968 : 102, 188)”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해 준다. 육지에서 ‘밀려온’ 비공식 부문의 사람들이 초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제주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¹¹⁾ 세대간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육지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식부문에 속하든지 비공식부문에 속하든지간에 육지사람은 제주의 생활세계 속에서 외부인으로 항상 인식되고, 따라서 對面관계에 기초한 익숙함이 자연스러운 사회의 특성을 더욱 드러나 보이게 한다. 또한 급격히 산업사회와 도시사회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과거 전통적인 제주사회의 질서를 가져온 문화주체

11)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친구와 가족이 사는 영역속에 살고 있는 제주사람들의 눈에는 지나치게 보일 것이다.

를 바탕으로 이주민 집단을 평가한 것이라고 보여진다.¹²⁾ 이러한 예는 미국 중산층이 살고 있는 교외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그 사회에서 외부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 문화의 논리(cultural logic)인데, 사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 사회의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newcomers)’이라는 집합적 표현은 긴장과 비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Greenhouse 1985 : 263, 필자의 傍點 추가).”

대개의 이주민들은 이동의 종착지인 생활근거지의 생활양식에 적응하여야 하는 데, 제주도에 오는 이주민들은 특히 공식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동의 출발지의 생활양식을 제주도에 은연중 퍼뜨리는 양상이 되어 제주사회 내에서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사회의 크기가 그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주민들이 동화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려는 생각으로 제주도에 오기 때문에 떠난 지역의 생활양식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잠시 머물다 가는 공식부문의 이주자들은 그들이 차지하는 사회계층내에서의 위치가 상층이고, 다른 지방에서의 공식부문의 이동보다 제주사회의 한정된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육지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산업화·도시화과정의 선봉으로 또는 거기에 편승해서 육지사람들이 들어오므로 교육과 대중매체와 더불어 전통적인 제주문화의 정체감을 위협하고 따라서 새로운 정체감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제주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고유의 생태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육지와 역사의적 관계도¹³⁾ 살펴 볼 필요가 있다(趙惠貞 1985, 庾喆仁 1984).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이주민인 육지사람에 대한 제주사람이라는 정체감이

12) 관광과 감귤농사로 본격적인 산업사회체제로 들어가기 전 제주사회에서 질서를 부여했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는 본 논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제주사회에서 전통적인 문화주체의 하나는 동질성과 ‘분산된 사회단위’에서의 통합의 강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연구는 현재의 제주사회의 또다른 측면을 제시해 줄 것이다.

對面社會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면, 전통사회거나 갑작스런 산업 사회로의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는 현재의 제주사회나 그 영향력은 비슷할 것이다. 육지사람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피해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玄基榮(1983)의 소설 한 부분을 보면,

제주출신이 고을 원을 하는 것은 섬백성에게 썩 소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병휘 같이 일년 과객(過客)이나 다름없는 육지인이라면 망놓고 토색질하다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섬 출신 수령은 벼슬이 갈려도 이 고장에 붙박혀 살 아갈 신세인데 입 큰대로 욕심을 채웠다간 두고두고 백성의 원성을 듣게 마련이었다(p. 51).

과거의 행정적인 이동이거나 현재의 직장이동이거나간에 머물다 가는 육지 사람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이며, 비록 제주도에 계속 살더라도 초기의 적응 과정에서 제주사람에게 비추어진 육지사람은 좋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이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제주사람을 어떻게 보리라는 판단에서 어느정도 고립성을 유지하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배타성을 바탕으로 제주문화의 정체감이 형성된다 하겠다. 이러한 정체감이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을 구분지어 주면서 제주사람들을 제주사회에 묶어두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문화 접변의 상황에서 가정된 피해의식과 도서환경이라는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는 전략으로써 정체감이 강조되는 것이다. 물론 정체감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은 육지사람과의 만남과 그에 따른 육지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IV. 맺는말 : 육지와의 접촉과 濟州社會

제주사람의 생활방식은 실제적으로 상당한 영역에서 육지식으로 또는 산업

-
- 13) 제주사람들의 정체감을 가져오게 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제주도와 육지와의 교류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Smith(1974)도 미국내의 포르투갈 사람들의 정체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과 포르투갈의 접촉의 역사를 통해 만남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그에 의하면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역사적 존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생활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제주사람의 생활방식이 산업사회의 생활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제주사람 자신들은 ‘육지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사회의 생활방식과 육지식의 생활방식이 같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육지에 대한 양면적인 생각과 육지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제주사람의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지역 엘리트층일수록 쉽게 육지식으로 변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에 대한 역동적인 해석을 통해 제주사람이라는 문화적 정체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감은 제주사람임을 나타내고 육지사람인 외부인과 경계를 지속화하는데 기여하는 장치가 된다.

제주도와 육지의 관계에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관계로까지 확대하면, 지역문화의 정체감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의 지역문화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다음의 글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제주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제주의 모든 사업이나 경제력을 제주사람만이 주도해야 된다는 식의 폐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기 마련이다. 제주와 서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대등한 평등함이다. 그 평등함은 오직 문화적인 평등만을 통해서 가능하다(濟大新報 1985年 11月 27日字 社說 중에서).

문화적 정체감의 확립과 그 내용은 결국 구조적 중속 특히 경제적 착취라는 박탈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을 이 글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와 육지의 관계가 더 크게는 한국전체사회와 서구사회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주문화라는 지역문화의 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한국문화의 앞으로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¹⁴⁾

본 논문에서는 제주사람의 정체감을 경계짓는 육지사람에 대한 인식과 육지사람들이 제주사람을 보고 있다고 제주사람들이 믿는 관점만을 통해 살펴보았

14) 이와같은 시각은 趙惠貞(1985)의 연구에서도 보이며, 특히 玄吉彥(1985)은 “제주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환기하는 것은 바로 제3세계에 대한 관심과 통한다. …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성찰하는데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다. 한 집단의 정체감에 대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자기자신을 보는 관점과 다른 집단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 갖고 있다고 믿는 관점과 실제로 다른 집단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사람이 제주사람 자신을 보는 관점과 실제로 육지사람이 제주사람을 인식하는 측면을 앞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제주도에 살고 있는 육지사람과 제주사람들이 같은 주거공간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육지사람에 대한 배타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주사람이란 정체감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 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 수 있다.

제주사회가 육지사람과 제주사람의 전형화에 바탕을 두면서 제주사람의 문화적 정체감을 강조한다고 할 때 육지에 산 경험이 있는 제주사람에 대한 현지 제주사람의 태도 또는 그러한 사람이 제주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 어떻게 편입되며 그 적응의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移住者로서의 육지사람이 어떻게 제주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가와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전망이 제주도 내부적 상황이 주는 압력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며, 제주사회내에서 기득권이 보장될 경우 이러한 전망도 굴절되어 內集團 意識의 강화로 外現化될 가능성이 높다(朴在煥 1977 : 633)는 연구결과는 제주사람들간의 사회적 관계망에 귀환이동(return migration)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濟州社會構造에 대한 이러한 연구와 육지와와의 교류에 대한 史的 연구가 이루어질 때¹⁵⁾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형성배경이 어떠한 사회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15) 위와 같은 연구에 덧붙여 다양한 제주사람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논문이 육지사람, 외부인, 이주자, 대학교수, 인문학자로서의 필자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제주사람의 정체감의 의미를 살펴본 시론적인 글이기 때문에 제주사회의 극히 일부분을 반영했을지도 모를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고창훈

1984 “濟州文化的 社會科學的 理解에 關한 研究：共同體意識을 中心으로,”
「濟州島研究」 1：19-45.

金俊希

1984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제주도 위미리의 사례,” 「人類
學論集」 7：106-151.

朴在煥

1977 “人間相互作用에 관한 濟州島民의 社會意識：民俗資料를 中心으로,”
「濟州大學論文集」 9：607-635.

石宙明

1968 「濟州島 隨筆」, 寶晉齋.

양순필

1985 “제주문화의 재조명：濟州島와 流配文學,” 「濟大新報」 5月 13日字.

庾喆仁

1984 “日常生活과 島嶼性：濟州島 文化에 대한 認知人類學的 接近,” 「濟州
島研究」 1：119-144.

李文烈

1983 “匿名의 섬,” 「金翅鳥」, 동서문화사.

張潤植

1982 “韓國社會構造論 試圖,” 「韓國의 社會」, 國際文化財團編, 時事英語社.

全京秀

1985 “濟州島의 觀光開發과 地域文化保全을 위한 提言：觀光人類學的 立場,”
濟州新聞 창간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제주도연구회 제1차 전국학술
대회 發表論文.

趙惠貞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韓相福編, 심설당.

1985 “근대화에 따른 성역할 구조의 변화: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제17회 韓國文化人類學 全國大會 發表論文.

崔在錫

1976 「韓國人の 社會的 性格」, 開文社.

玄基榮

1983 「변방에 우짖는 새」, 創作과批評社.

玄吉彥

1985 “제주전설과 제주사람의 삶의 양식: 제주문화와 제3세계에 대한 예비적 고찰,” 社團法人 世界平和教授協議會 濟州支會 제5회 학술세미나 發表論文.

玄容駿

1979 “민속을 통해서 본 耽羅精神,” 濟州大學 耽羅研究所 주최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發表論文.

1983 “三無精神의 研究,”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濟州道.

Beals, Ralph L.

1951 Urbanism, urbanization and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53: 1-10.

Berger, Peter L. & Thomas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Doubleday & Co., Inc.

Bianco, Carla

1980 Ethnicism and culturology: The cultural identity of regional and immigrant groups, *Sociologia Ruralis* 20(3): 151-164.

Dumont, Jean-Paul

1984 A matter of touristic “indifférance”, *American Ethnologist* 11: 139-151.

Fitzgerald, Thomas K.

1974 Introduction,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Thomas K. Fitzgerald ed.). Southern Anthropological Society.

Foster-Carter, Aidan

1984 “접합의 의미,” 「제3세계의 경제와 사회 II - 경제인류학을 향하여」.

- John Clammer編, 양희왕·허석렬 共譯, 풀빛.
- Greenblat, Cathy Stein & John H. Gagnon
1983 Temporary strangers: Travel and tourism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Sociological Perspectives* 26: 89-110.
- Greenhouse, Carol J.
1985 Anthropology at home: Whose Home? *Human Organization* 44: 261-264.
- Keesing, Roger
1981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全京秀 譯, 「現代文化人類學」, 玄音社, 1985.
- Linnekin, Jocelyn S.
1983 Defining tradition: Variations on the Hawaiian identity. *American Ethnologist* 10: 241-252.
- MacCannell, Dean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Schocken Books.
- Merrill, John
1980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39-197.
- Nuñez, Theron
1977 Touristic studies i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Valene L. Smith ed.).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Opler, Morris
1945 Themes as dynamic forces in cul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1(3): 198-206.
- Redfield, Robert, Ralph Linton & Melville J. Herskovits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Sanders, Irwin T.
1977 *Rural Socie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Smith, M. Estellie
 1974 Portuguese enclaves: The invisible minority.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Thomas K. Fitzgerald ed.).
- Smith, Valene L.
 1977 Introduction.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Valene L. Smith ed.).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pradley, James P.
 1972 Adaptive strategies of urban nomads. *Culture and Cognition: Rules, Maps, and Plans* (James P. Spradley ed.).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
- Vidich, Arthur J. & Joseph Bensman
 1968 *Small Town in Mass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olkman, Toby Alice
 1984 Great performances: Toraja cultural identity in the 1970s. *American Ethnologist* 11: 152-169.
- Wagner, Roy
 1981 *The Invention of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lace, Anthony
 1956 Revitalization Movements. *American Anthropologist* 58: 264-281.
- Walter, Michael A.H.B. & Riaz Hassan
 1977 An island community in Singapore: A characterization of a marginal society. Sociology Working Paper No.61.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Singapore.